



이종근(삼육대)

## 1. 서론

성서 일부분은 일견 연구가 끝난 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천년 동안이나 열심히 연구하더라도 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숨은 보화들이 무수히 내재된 항구적 의미가 있는 책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그중 히브리 지혜문학의 잠언(箴言, proverbs)과 한국의 속담(俗談, old saying/ adage)은 교훈과 경계의 효용성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sup>1</sup>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

\* 이 논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14차 추계학술대회 (주제: 구약성서와 지혜, 일시: 2020년 10월 16일금)에서 발표된 “히브리 잠언과 한국 속담”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귀한 논찬을 해 주신 김지훈 교수님께 감사사를 표한다.

1 김성훈, “‘잠(箴)’과 [잠언]의 비교연구-동질성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7 (2011), 231-232; 정달영, “한, 영 속담의 비교연구”, 『비교한국학』 6 (2000), 147.

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신 29:29). 히브리 지혜(wisdom, 호크마, ḥokmah)와 한국 속담의 이슈 중 히브리 지혜는 성서의 잠언(Proverbs) 중심으로 살펴본다.<sup>2</sup> 본고는 히브리 잠언과 한국 속담에 대한 프랙시스로 그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저자가 이미 발표한 것과 선학들의 연구를 기초로 한국 속담이 지닌 지정학적 및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비교하고자 한다.<sup>3</sup> 속담 관련 다 문화권과 비교연구가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활

2 성경의 히브리 지혜는 삶의 고난을 다룬 율기, 인생의 허무에 대한 담론인 전도서가 있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히브리 잠언은 성경책 잠언 중심의 논의이다.

3 잠언 관련 연구(일부): 박종수, “잠언서에 나타난 여성지혜: 잠언 8:22-31 & 31:10-31을 중심으로”, 『論文集』25 no.1 (1994), 9-31; 이정배, “잠언과 명심보감”, 『세계의신학』 46 (2000), 287-292; 채은하, 「전도서에 나타난 속담의 수사학적 기능 연구」(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이영호, “잠언과 동양의 격언”, 『기독교사상』 53.4 (2009), 65-76; idem, “이스라엘 지혜 문학과 그 영향-구약성서 안에 이스라엘인 민족, 그들만의 고유한 지혜가 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5 (2015), 47-68; 유윤중, “잠언이라는 장르와 설교, 지혜설교를 지향하며”, 『복음과 신학』 10 (2008), 50-70;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 지혜문학의 눈으로 다시 본 성서”, 서울: 동연, 2009; idem,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14. 4 (2008. 12), 147-166; idem, “구약 지혜전승과 신약성서”, 『구약논단』 18 (2005. 8), 128-144; idem, “지혜문학과 묵시문학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2 (2004), 49-67; 한동구, “잠언과 논어의 언어관”, 『기독교사상』 53.4 (2009), 42-53; idem, “구약과 공정한 사회: 잠언의 지혜 신학에 반영된 ‘공정한 사회의 이념’”, 『구약논단』 17. 3 (2011년 9월), 12-33; 김광률, “실천적 지혜를 탐구하는 잠언 교수-학습 방법”, 『신학논단』 62 (2010), 57-79; 정중호, “잠언 31, 10-31의 여성 활동과 고려시대의 여성 활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9.1 (2012), 7-29; 박혜경, “잠언 8장의 여성 지혜와 안병무의 선천덕”에 대한 해석학적 대화”, 『신학사상』 163 (2013), 9-45; 윤형, “잠언 8:22-31에 나타난 지혜와 창조의 역학적 관계”, 『구약논단』 26(1) (2020), 93-119; 이하나, “장자(莊子)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전도서 7장 15-18절”, 『구약논단』 26.2 (2020), 41-67; 배정훈, “빈자(貧者)의 역습 시대”, 『구약논단』 26.1 (2020), 7-11.

속담 관련 비교연구 등: 조복희, 이진숙, “한국 부모-자녀관계 관련 속담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인식도”, 『아동학회지』 19.1 (1998), 5-25; 정달영, “한, 일 속담의 비교연구”, 『비교한국학』 4 (1998), 60-106; idem, “한, 영 속담의 비교연구”, 『비교한국학』 6 (2000), 147-168; 강성영, “프랑스 속담과 우리나라 속담에 있어서 성차별 요소 및 그 의미 기능 비교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40 (2002), 1-22; idem, “불어학: 프랑스어 속담과 관용어의 언어학적 비교연구”, 『불어불문학연구』 58 (2004), 333-359; 김종도, “이집트 속담을 통해 본 이집트인의 의식구조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11.1 (2007), 194-224; 이영옥, “한영간 의인화의 차이”, 『언어연구』 25.1 (2008), 61-81; idem, “한영 속담의 의인화 비유법”,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7.1 (2009), 153-172; 김화경, “한, 일 현대담의 비교연구”, 『한민족어문학』 50 (2007), 159-186; 김상규, 『속담으로 풀어보는 이야기 경제학』(서울: 오늘의 책, 2005); 마빈 토케이, 은제로 역, 『히브리 잠언』, 키클디아사, 1992; 조혜진, “한국어와 스페인어 속담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찰”, 『이베로아메리카』 13/1 (2011), 319-350; 김희정 외, 『지중해 나라별 속담』, 부산의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송은영, 『속담 속에 숨은 수학: 단위와 측정』, 봄나무, 2012; 송용구; 『세대를 초월한 서양의 잠언적箴言의 서사사: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와 [오디세이아] 장정 엮보기』, 『문예운동』 (2013),

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구약학계의 비교연구는 첫 시도로 다소 만시지탄으로 보인다. 본고는 지혜문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히브리 지혜와 한국 속담의 배경, 구조 및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증유의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삶의 해안을 열어주는 일부 관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 2. 히브리 지혜와 한국 속담 배경

잠언은 히브리 지혜문학의 백미(白眉)이다. 잠언은 지혜의 명언집으로 다양한 주제와 경험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부, 가난, 자녀교육, 정의, 불공정, 말, 태도, 계명 등의 주제들을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면서, 삶이 항상 쉽고 간단하지는 않은 면모를 보여준다. 삶의 다양한 방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상황과 선택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히브리 지혜문학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는 패권 세력의 완충지대(buffer zone)<sup>4</sup>에서 히브리인들의 일상 경험을 다루고 고대근동의 문헌, 특히 고대 이집트의 문헌들을 반영한다. 그것은 히

---

278-283; 허유희, “이탈리아어와 한국어의 속담 비교연구”, 『이탈리아어문학』 43 (2014), 469-492; 김미순, “속담의 ‘變化’ 요인에 대하여”, 『언어학 연구』 37 (2015), 69-89; 최성은, “폴란드와 한국의 속담 비교연구-말(言)과 관련된 속담을 중심으로”, 『세계문화비교연구』 59 (2017), 195-220; idem, “폴란드와 한국의 속담 비교연구: 돈·재물과 관련된 속담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화저널』 44 (2018), 127-158; 김경량, “문화, 문학: 한국과 알제리 속담에 나타난 전통 여성관 비교”, 『비교문화연구』 30 (2013), 53-71; 도수환, “불한사전 속담 등재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92 (2015), 217-242; 서영숙, 박포리,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에 나타난 민속신앙 비교”, 『한국민요학』 48 (2016), 133-165; 채은희, “한국 속담의 다문화화성 양상 탐색”, 『인문사회』 21 11, 2 (2020), 481-494.

4 가나안/ 팔레스타인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이라는 세 대륙의 교차점(crossroad), 거룩한 가교(the sacred bridge, Anson F. Rainey) 또는 사이 땅(the land between, James M. Monson)으로도 불린다. 이종근, 「히브리 법사상」(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04), 17-20; 앤손 F. 레이니(Anson F. Rainey), R. 스티븐 나틀리(R. Steven Notley), 「성경 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The Sacred Bridge: Carta's Atlas of the Biblical World*), 강성열 역(서울: 이레서원, 2006), 11-14; James M. Monson, *The Land Between: a Regional Study Guide to the Land of the Bible* (Highland Park, IL; Jerusalem: Institute of Holy Land Studies, 1983), 2-10.

브리 신앙 교훈의 일상적 적용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sup>5</sup>

한국도 약 반만년 동안 외세에 시달리면서 독립을 유지해 왔다. 지정학적으로 생존을 위해 쓰름한 양 문명권의 정신 문화유산인 잠언이나 속담은 그 유용성에 있어 시대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근세사에서 일제 강점, 해방공간의 혼란과 6.25동란, 군사독재, 산업화, 민주화 등의 격동기를 거쳐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의 침탈을 겪은 뒤 독립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모된 세계 최초의 나라이다. 내우외환의 질곡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한반도의 주권국가로써 고난을 극복하고 면면히 발전해 온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1919년 3.1운동 때, 동경의 YMCA 총간사였던 클린톤은 한국 문제의 해결은 세계문제의 해결이라고 했다. 세계문제의 핵심과 축소판이 한국 문제라고 했다.<sup>6</sup> 이런 혼란과 어려움의 한반도 상황에서 속담은 이런 세태를 반영하며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잠언과 속담은 양 문명권의 풍습과 종교, 정서와 가치관 등을 담은 것들로 선대들로부터 전승되고 발전된 것들이다.

---

5 Jacques B. Doukhan, *Proverbs* (Nampa, Idaho: Pacific Press, 2014), 8; 김광률, “실천적 지혜를 탐구하는 잠언 교수”, 57-79; 이원일, “실천신학적 접근에서의 실천적 지혜”, 「신학논단」 73 (2013. 9), 259-286. 반면 토라와 지혜, 예언과 지혜에 대한 관계 설정에는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왕대일, “지혜전승. 지혜정신. 지혜신학, 성서신학을 향한 이정표: 서론”, 안근조, 「히브리 지혜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 (서울: 동연, 2016), 3.

6 민경배, “교회사회적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 8.15대성회의 신학적 의의”, 한국교회 8.15대성회 신학학술 포럼 (한국기독교학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명성교회 월드클로리아센터 토마스홀 [2010. 8. 12(목) 오후 1:00, 11.

### 3. 잠언과 속담의 구조

#### 1) 잠언의 편집과 성격

성서는 인류 정신문화의 보고로서 그 영지 중 히브리 지혜는 지혜문학서인 욥기, 잠언과 전도서(傳導書) 그리고 외경의 지혜서(Wisdom of Solomon), 집회서(Ecclesiasticus/ Wisdom of Ben Sira), 바룩서에 걸쳐 주로 펼쳐진다.<sup>7</sup> 특히 잠언은 고대 이스라엘의 처세훈을 다룬 “인류 역사상 가장 보편적 문헌”<sup>8</sup>으로 거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행편을 다루고 있다.<sup>9</sup> 고대 이스라엘이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배태된 것들이지만, 편집과정에 부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팔레스타인에서 외세의 침입, 분단, 멸망, 이주, 귀환과 재

#### 7 지혜의 출처:

욥기28: 인간이 광석을 캐는 것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 인내와 용기있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했다.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잠 8:12-13,27-28).

시라 24장: 창조된 지혜(잠 8:23)는 이스라엘 내에 존재하다가 모세의 율법과 동일시된다(집 24:8-11,23).

바룩서 3:9-4:4: 지혜가 율법과 동일시되지만(바4:1), 인자들과 땅에서 어울림(바 3:38).

지혜서 7-9장: 창조자/장인(잠 8:30)으로서 초월성과 내재성의 성격을 드러낸다(지 7:1,7; 8:6).

#### 8 유윤중, “잠언이라는 장르와 설교”, 『복음과 신학』 10 (2008), 51.

#### 9 사람의 범주: 부자(잠 10:15)와 가난한 자(14:31), 지혜자(21:22; 24:5)와 미련한 자(12:15; 26:11), 부모와 자녀(19:13), 노인과 손자(17:6), 왕(21:1)과 신하(14:35), 남자(20:6)와 여자(11:22; 14:1), 남편(31:23)과 아내(12:4; 31:10), 아버지와 어머니(10:1), 이스라엘(1:1; 25:1)과 비 이스라엘(30:1; 31:1), 정직한 자(15:8)와 불가지론 자(30:3-4), 의인과 악인(10:20; 13:25) 등.

모든 상황: 먹을 때(17:1)와 마실 때(5:15), 병든 때(18:14)와 일할 때(24:27), 사업할 때(11:1)와 아무 일도 안 할 때(6:10), 사랑할 때(10:12)와 미워할 때(8:36), 다룰 때(25:9)와 말할 때(1:11), 침묵할 때(17:28)와 가르칠 때(13:24), 잠잘 때(4:16)와 일어날 때(6:22), 생각할 때(15:28), 슬플 때(1:27)와 기쁠 때(15:13), 웃을 때(1:26; 14:13), 살 때(7:2)와 죽을 때(5:5) 등.

#### 10 지혜문학의 관점은 토라나 예언서의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중심의 신학적 관점을 드러내고, 선택, 역사 및 약속 등의 계약사상이 결여되어 있다. 지혜문학은 고대근동 문화과의 유사성이 있고, 역사비평학의 영향으로 창조신앙은 구속신앙에 종속된 것으로 또한 지혜문학을 후대의 것으로 소홀히 다루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면모는 폰라드(Gerhard von Rad), 아이크로트(Walther Eichrodt), 클리멘트(Ronald E. Clements) 등의 신학적 담론에서 구원사를 구약신학의 중심으로 보고 지혜전승은 주변부의 이슈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60년부터 지혜문학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을 극복하는 연구가 델(Katharine J. Dell) 등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어 지혜전승이 율법전승이나 예언전승과 통합되며 초기부터 지혜전승이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근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게 이르렀다. 더 나아가 지

건 등 민족적 난세와 생존의 위기 가운데서 히브리 잠언이 배태되고 인류의 유익을 위해 전승되었다.

그것은 솔로몬과 히스기야 시대(잠 1:1; 10:1; 25:1)의 오랜 전승들과 후대의 것들로 결합되어 있고, 포로 후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잠언의 편집은 지혜학과(*byt mdrš*, 메소포타미아의 EDUBA)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간결성과 평행법, 비교 및 비유 등의 문학적 묘사로 야훼 종교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sup>13</sup> 특히 이방 종교와 성적 관계가 문란한 여성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는 지혜여성의 교훈을 강조한다(잠 2:16-20; 5:3,20; 6:24,26; 7:5,8,10-11,25; 9:13).<sup>14</sup> 이스라엘의 지혜학파는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목표로 궁중, 학교, 부족 및 교육받은 계급이 축적된 지혜를 가르치고 전수했다. 특히 궁중에서 일하게 될 귀족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현실체제 안정 위주의 배경에 기인한다. 반면 메소포타미아의 지혜학파는 주로 주술이나 신탁 및 마술 등의 종교적 및 제의적 행위가 주 관심사였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천명함으로 지

---

혜와 율법, 지혜와 예언, 지혜와 묵시 등의 관계 설정을 위한 부단한 논의가 있었다. 지혜전승의 역사적 배경이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 참고: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지혜문학의 눈으로 본 성서」, 15-32; 안근조, 「히브리 지혜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 (서울: 동연, 2016), 25-66.

- 11 김영진, 「구약성서의 세계」 (서울: 하늘기획, 2009), 1037-1038; 김영진 외, 「구약성서 개론: 한국인을 위한 최신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481-483;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 지혜문학의 눈으로 다시 본 성서」 (서울: 동연, 2009), 15-80.
- 12 제임스 L. 크렌쇼,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 강성열 역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36-54, 89-133.
- 13 잠언의 구성은 1-9장의 ‘슈마 브니’, ‘내 아들이 들으라’(잠 1:8; 2:1; 3:1; 4:1; 5:1; 6:1; 7:1 등)로 시작하는 10개의 이야기와 10-31장의 개별적 격언으로 개인적 윤리 가치를 제시하는데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Frank J. D’Angelo, “Some Uses of Proverbs”,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28/4 (Dec., 1977), 365-369; 이용호,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 (용인: 킹덤북스, 2014), 97-111; 김희석, “잠언 1-9장의 해석학적 신학적 함의”, 「Canon & Culture」 5. 1(2011), 203-235.
- 14 지혜여성에 대한 참고: 안근조, “잠언의 의인화된 지혜여인: 그 수사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미”, 제 114차 한국구약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구약성서와 지혜” 자료집 (2020. 10. 16(금) 9:00-15:30(29-32), 29-32; 박지은, “여성 지혜에 나타난 여성의 소외: 잠언 1-9장과 31장을 중심으로”, 「여성신학논집」 10 (2014): 1-24; 김성진, “잠언 1-9장에 나타난 여인 모티프 연구: “지혜 여인”과 “음녀”의 문학적/신학적 기능”, 「ACTS 신학저널」 (구 ACTS Theological Journal) 36 (2018): 45-77.

혜의 신본주의를 지향한다. 지혜는 인간적 영민함이나 지성 이상의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것이고, 겸손과 인간적 한계를 느끼고 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지혜학파는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현자 및 장로들을 포함하는데, 잠언에서 대표적 현자는 솔로몬으로 나타나고 그 지혜도 하나님의 은사로 여긴다(왕상 2:9; 4:29-34).

“잠언”은 히브리어 동사 마샬(*māšal*)에서 나온 말인데, 그 어원은 “닭다”, “비교하다”, “비유로 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sup>15</sup> 잠언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잠 17:22)처럼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을 뜻한다. 그것은 성서에서 속담(삼상 10:12; 욥 13:12), 비유(겔 17:2; 20:49), 노래(민 23:7-8), 예언(민 23:18) 등 여러 형태로 쓰였다.<sup>16</sup> 잠언의 31장 중 솔로몬의 이름이 3번 드러나지만(잠 1:1; 10:1; 25:1),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 / 아메네모페(Amenemope)의 교훈집(잠 22:17-24:22, ANET, 421-424),<sup>17</sup> 히스기야 신하들의 편집한 것(잠 25:1), 그리고 아굴(잠 30:10과 르무엘(잠 31:1)도 잠언을 편집한 것으로 언급된다. 더 나아가 잠언 1-9장의 경우도 일관된 문학적 통일체라기보다는 다양한 자료들의 조합이라는 연구도 제기되고 있다.<sup>18</sup> 솔로

15 Ernest Klein,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for Readers of English* (Carta Jerusalem/ The University of Haifa, 1987), 392.

16 BDB, 605; George V. Wigram, *The New Englishman's Hebrew Concordance* (Hendrickson Publishers, 1984), 772.

17 아메네모페의 교훈집에 관한 참고: 이용호, “이스라엘 지혜 문학과 그 영향: 구약성서 안에 이스라엘 인 민족, 그들만의 고유한 지혜가 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5, 1 (2015), 47-68; Paul Overland, “Structure in the Wisdom of Amenemope and Proverbs”,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Studies in Honor of Dwight W. Young* (1996), 275-291; Michael V. Fox, “From Amenemope to Proverbs: editorial art in Proverbs 22,17-23,11”,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6/1 (2014), 76-91.

18 잠언 1-9장의 다양한 편집설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델리취(F. Delitzsch)는 잠언 1-9장을 15개의 교훈시로 이루어진 통일된 문학체로 본 반면 스키한(P. W. Skehan)은 건축물 내지 문학단위들이 모여 이루어진 연합체로 보았다. 와이브레이(R. N. Whybray)는 교훈(lesson)과 연설(discourse)로 구성된다. 교훈은 아버지나 교사에 의해, 연설은 의인화된 지혜에 의해 전달되었다고 했다. 연설을 지혜교사의 권위와 설득력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본성,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경의임을 밝히는 목적으로 후대에 도입되었다고 했다. 스캇(R. B. Y. Scott)은 잠언 1-9 장이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가장 뒤늦은 시기에 첨가된 문학단위로 간주했다. 맥케인(W. McKane)은 잠

문이 잠언 저술에 주요 역할을 했지만,<sup>19</sup> 다른 편집자들(editors)과 수집자들(compilers)이 최종 편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략 잠언 전체 31장 915절 중 759절이 솔로몬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집필했다는 3000개의 잠언(왕상 4:32) 중 약 759개(25.3%)가 그 당대의 필요에 따라 잠언에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전도서도 솔로몬이 “궁구하고 잠언을 많이 지었”(전 12:9)다고 했다. 또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방문했던 사실은 그의 지혜가 고대 세계에서 메아리쳤음을 보여준다(왕상 10:1-10).<sup>20</sup> 고대근동의 지혜문학에는 속담의 성격을 띤 여러 문헌들이 있다.<sup>21</sup>

---

언 1-9장의 문학적 양식이 교육지도(instruction)와 지혜문장(wisdom sentence)으로 나뉘는데 교육지도는 국제적 문학장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 궁중관료들을 훈련시키기위해 이집트로부터 도입되었다고 했다. 안근조, “지혜문학 연구의 제방법론: 잠언 1-9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8, 1 (2012), 35-37.

19 잠언 이외의 솔로몬과 지혜에 대한 언급: 왕상 4:29-34; 시 72:1; 127:1; 마 12:42.

20 이스라엘의 지혜는 고대근동이라는 문화적 배경에서 출발했다. 히브리 지혜는 영감과 계시의 특별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성경으로 편집되었다. 히브리 지혜의 원만한 이해를 위해서는 고대근동의 신학적 주제들과 히브리 지혜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성서 연구에 중요한 과제이다. John H.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Introducing the Conceptual World of the Hebrew Bibl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6), 302-311; K. L. Sparks,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A Guide to the Background Literature* (Peabody, MA: Hendrickson Pub. 2005), 4-5.

21 고대근동의 문학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이집트 지혜문학:

(1) 프타호텟의 교훈(The Instruction of Vizier Ptahhotep, 5왕조, c. 2500-2350 BC)- 제5왕조의 고관 프타호텟가 그의 아들에게 준 교훈으로 성공적인 관리가되는 방법에 대한 충고;

(2) 메리카레를 위한 교훈(The Instruction for Merikare, 10왕조, c. 2106-2010 BC)- 파라오가 아들에게 정 의로운 통치, 반역, 군대 등에 관한 통치원리를 가르치는 교훈.

(3) 유창한 농부 이야기(The Protests of the Eloquent Peasant, 12왕조, c. 1963-1786 BC)- 자신의 물건을 사기당한 유창한 농부가 고위 관리에게 정의를 호소하여 결국 재판에서 이기도 높은 지위를 얻는다는 내용임.

(4) 아메네모페의 교훈(The Instruction of Amenemope, BC 10-6세기)-잠언 22:17-24:22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혜로운 행동에 대한 가르침임.

(5) 옹크세손키/양크세손키의 교훈(The Instruction of Onksheshonqy/Anksheshonqy, c. Ptolemaic period)- 대략 에스터 시대 기원전 400년경 이집트의 작품으로 대영박물관 파피루스 10508에 쓰여진 것으로 잠언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음.

메소포타미아 지혜문학:

(1) 아카드 잠언(Akkaddian Proverb Texts)- 널리 알려진 간결한 속담과 격언을 수록함.

잠언 지혜의 성격은 다양하게 제시된다. 팔레스타인에서 히브리 지혜는 삶의 최고 방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지혜는 마치 사람처럼 고대 시대의 생활 현장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올바른 길로 안내한다(잠 1:20-33; 3:15-18), 지혜는 부귀와 장수 등 성공의 처세술(잠 3:16; 8:14-21), 실질적인 기술(잠 9:1-12), 종교적 신앙의 대상(잠 3:15; 4:7)으로, 또한 생명과 은총의 창조자(잠 8:32-35)로 창조된다. 더 나아가 잠언 8장에서 지혜는 만물의 으뜸으로서, 테초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만상을 창조한 창조협력자(잠 8:22-31)이다. 특히 여기서 지혜는 후대 신약에서 의인화 이상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신위[神位/ 신격체[神格體, hypostasis/ godhead)의 배경이 된다. 더욱이 그것에 대해 신약의 저자들은 로마제국 통치하의 그리스 철학의 성육화된 로고스(incarnated logos, 요 1:1)와 소피아(incarnated sophia, 고전 1:24) 개념인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다(고전 1:24,30; 딤후 3:15).<sup>22</sup> 이 로고스는 구약의 태초 천지 창조(창 1:1)에 근거했지만, 헬라 사회의 철학적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sup>23</sup>

(2) 지혜의 충고(Counsels of Wisdom)- 독자를 “네 아들”로 칭하면서 실질적인 조언을 담고 있음.

(3) 바벨론 신정설(The Babylonian Theodicy, c. 1100-1000 BC)- 고통중에 있는 사람이 전통적 지혜의 개념을 고수하는 사람과 논쟁을 벌인. 욱기와 유사함.

(4) 아히카의 금언(The Words of Ahiqar, c. 6-5세기 BC)- 아람어 파피루스로

발견되었지만 원래 앗시리아에서 아카드어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활한 조카의 대적에 약한 수단을 쓰지 않고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가장 현자임을 증명함. 아르메니아어와 아라비아어로 번역되고, 외경 토비트서에 내용이 암시됨. Miriam Lichtheim, *Ancient Egyptian Literature*, vol. III: The Late Perio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159-189; Bruce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NICOT (Wm. B. Eerdmans Publishing Com, 2004), 28-31; Sparks,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56-83; 크렌쇼,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 293-308; 이환진, “아람어 아히카르 이야기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과 잠언의 창조 모티브”,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1/21(2007), 34; 「스페셜 성경」, 911.

22 이종근, “함무라비 법과 잠언 8장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천상회의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3.1 (2017), 213-219.

23 로고스는 말, 이야기, 설명, 사물 등의 소통 수단의 의미를 지니지만, 헤라클리토스(Heraclitus, c. 535-475 BC)는 로고스를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신성한 이치로, 스토아학과(Stoics, c. 기원전 3세기-기원 후 2세기)는 만물에 질서와 합리성을 부여하는 로고스가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보았다. 후기 스토아 학파에서는 로고스가 이성인 내재된 불과 공기의 조합체인 프뉴마(영, 정신)와 동등하고 각 사람 안에 인간의 이성인 로고스가 있으며 우주엔 충만한 로고스(세상을 지배하는 합리성)이 있다고 했다. 인

이것들은 히브리 잠언의 예들로, “의인은 장수하고 악인은 일찍 죽는다”(잠 10:27); 또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악인은 굶주리게 된다” 등으로 표현된다(잠 10:3; 13:25; 15:6). 반면 이와는 다르게 의인이 고통을 당하거나 악인이나 우매자가 형통하는 경우(전 2:12,15; 7:15-17)도 있다고 했다. 잠언의宗旨(宗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강조한다(잠 1:7; 9:10; 31:30).

## 2) 지혜의 구조

지혜는 잠언에서 삼중구조/삼중연합으로 되어있다.<sup>24</sup> 지혜(호크마), 명철(*tābūnāh/bināh*, understanding), 그리고 지식(*da'at*, knowledge)의 구조는 다양한 모습으로 언급된다. 명철은 “사이, 중간”이라는 말(*bēn*)처럼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직관력 및 판단력 등을 의미한다. 지혜는 명철과 지식을 대표적으로 포용하지만, 공평과 정의, 정직, 근신과 전략 등의 자질도 수반한다(잠 1:5; 3:21; 20:18; 24:6). 지식은 어떤 현상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또는 식견을 말하는데 히브리 지식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sup>25</sup> 잠언에서 이 삼중구조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yirat YHWH*) 지혜이다(잠 1:7; 9:10). 지혜의 삼중연합은 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역사한다.

첫째, 지혜의 삼중연합으로 지혜, 명철, 지식은 천지창조에 동역했다. 즉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 등의 창조에 함께 활동하고, 지혜가 대표적 개념으로

간의 로고스는 우주의 로고스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신약에서 이 로고스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이다. 즉 우주와 각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원리 및 진리로서 인격화된 로고스로서 예수 그리스도이다. 「스페셜 성경」, 142; 문우일, “요한복음 로고스 개념에 대한 철학적 고찰”, 「신약논단」 20(2) (2013.06), 339-369; 김정우, “잠언 8장 22-31 절에 나타난 지혜의 성격과 창조에 있어서 그의 역할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24 (2009), 7-33; Kevin Robb, “Psyche” and “Logos” in the Fragments of Heraclitus: Origins of the Concept of Soul, “*The Monist* 69.3 (1986), 315-351; Ed L. Miller, “The logos of Heraclitus: updating the report”, *The Harvard Theological Review* (1981), 161-176.

24 이종근, “메소포타미아와 잠언의 운명관에 대한 연구: 신앗시리아 제국의 에살하돈의 불길예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7 (2018), 80-85.

25 이종근, 「히브리 사상」, 개정판 (삼육대학교 출판부, 2014), 293-294.

제시된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잠 3:19-20). 지혜의 삼중연합이 천지창조 사역과 질서(order)를 완성했다고 했다. 인간의 존재는 지혜의 삼중연합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삼중연합은 상호보완적이며 또한 불가분의 관계로 일상화되고 인격화되며 또한 신격화의 면모를 나타낸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공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잠 8:12-21). 특히 신격화되어 지혜를 기다리며 얻은 자들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고 했다(잠 8:33-35).

이 삼중연합의 지혜는 명철이라는 가치 위에 존재하며, 상황에 부합되는 지식과 신중한 처신을 하는 근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삼중연합의 길은 악과 교만,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의 법과 정의의 수단이 되고, 그 결과는 부귀와 장수 등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적으로 삶의 집을 짓는데도 동역한다.<sup>26</sup> 천지창조와 내재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동역하는 삼중구조가 인간 집(개인의 삶) 건축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집은 지혜로 말미암

---

26 지혜의 집에 대한 참고: 김요한, “지혜가 지은 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57 (2003), 3-5; 김정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 『문예운동』 (1966), 165-167; Teresa Berger, “‘Wisdom Has Built Her House’ (Proverbs 9:1): Gendering Sacred Space”, 『Studia Liturgica』 38 no 2 (2008), 171-183; Roy B. Zuck, “The House on the Rock: Wisdom from Proverbs for Today’s Families”, 『Bibliotheca Sacra』 145 no 580 (Oct - Dec 1988), 466.

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의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잠 9:1; 24:3-6).

일곱 기둥의 숫자 일곱은 고대근동에서 성스러운 것(sacredness), 전체(totality) 또는 완전성(completeness)의 의미로 널리 알려져 왔다. 성서에서 그것은 태초 7일간의 천지창조(hexameron)에 기초하고, 특히 천지창조 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쉬시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창 2:2-3)은 숫자 일곱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식되게 했다.<sup>27</sup> 구약에는 일곱과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제시된다(창 29:20; 33:3; 출 20:8-11; 34:18; 레 16:14,19; 23:24 등). 심지어 신약에서도 지혜의 일곱 속성(약 3:17), 신의 성품(벧후 1:5), 일곱 교회(계 1:4), 일곱 영(계 3:1), 일곱 금촛대(계 1:4) 등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은사와 관련되고, 신성의 조화와 일치 등을 상징한다.<sup>28</sup> 지혜의 일곱 기둥은 완전한 토대 위에 인간 삶을 세우고, 명철로 그것을 견고하게 하고, 각종 지식의 보배들로 삶을 보람되게 유지되도록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투쟁을 삼중연합의 전략으로 승리하게 된다. 지혜는 사람을 강하게 하고, 지식은 사람에게 힘을 더한다.<sup>29</sup>

27 E. Eugene Boring, “Seven, Seventh, Seventy”, *NIDB*, 5:197-199; Duane F. Watson, “Seven Churches”, *ABD*, V:1143-1144.

28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433. 영적 의미에서 일곱 기둥은 일곱 가지 신적 속성을 상징한다고 해석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훈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 3:17);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 1:5). 김요한, “지혜가 지은 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57호 (2003. 1), 3-5; cf. William P. Brown, *The Seven Pillars of Creation: The Bible, Science, and the Ecology of Wonder*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9 사도 바울은 이런 이미지를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적용시키고 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

삼중연합의 작품인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등의 지구생태계는 자연률/자연 질서로 존재하고, 집으로 언급된 인간 삶은 도덕률/도덕 질서(moral order) 위에 세워져 있다. 고대근동의 질서와 혼돈의 투쟁 모티브<sup>30</sup>와는 달리 잠언은 자연률과 도덕률의 모든 질서에 도덕 주권자(Moral Governor, 잠 2:1; 3:1; 4:1; 5:1; 6:1; 7:1)가 있어,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를 주관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더욱이 도덕 주권자로서 지혜는 잠언에서 가장 친절하고 자애로운 창조주의 부성적(父性的) 표현으로 “내 아들이”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도덕률에 따른 약속의 성취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sup>31</sup>

인간 존재에 대해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다”고 했다(행 17:26). 또한 자연계에 대해서도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계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렘 5:22, 개정개역); 해양에 대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한다(잠 8:29). 하나님은 자연계 가운데는 자연률로, 이 세상

시며 기쁨으로 모든 건담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했다(골 1:9,11).

30 고대근동에서는 창조세계의 질서(order)를 혼란(chaos)과의 투쟁에서 승리로 보았다. 에누마엘리쉬에서 마르둑이 티아맛을 패배시키고(ANET, 42-43), 바알이 바다의 신 얌(ANET, 131; Coogan, 88-89), 메리카레(Meri-ka-re)의 교훈에도 신이 바다 괴물을 물리치고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ANET, 417). Michael L. Barré, “Fear of God” and the World View of Wisdom”, *Biblical Theology Bulletin* 11,2 (1981), 41-43; Michael D. Coogan, *Stories from Ancient Canaan* (Westminster Press, 1978), 9-25,75-115; Stephanie Dally, *Myths from Mesopotamia: Creation, the Flood, Gilgamesh, and Others* (Oxford: Oxford Univ. Press, 1991), 39-135; J. Edward Wright, “Cosmogony, Cosmology”, *NIDB*, 2:756; 노세영, “지혜문학에 나타난 창조신화”, 「신학사상」 85 (1994), 94-118; 이종근, “성경의 우주론”, 「성경·과학 신앙: 2021 사경회 부교재」, 남대극의 편 (서울: 한국연합회, 2020), 105-106.

31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잠언에서 무려 23회에 걸쳐 나온다. 폰라트는 자연질서를 비인격적 운행원리 수준으로 보았지만, 인격적 존재로 호소하고 있다. Waltk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564-565; David VanDrunen, “Wisdom and the Natural Moral Order: The Contribution of Proverbs to a Christian Theology of Natural Law”,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33,1 (2013), 153-168. G. von Rad, *Wisdom in Israel* (Nashville: Abingdon, 1972), 153-157; 바이블렉스 10.0 (브니엘성경연구소).

의 인간 삶에는 도덕률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역사한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삼중연합의 창조세계에 거주하면서, 지혜의 훈계와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평안(잠 1:33; 10:9 등), 안전(잠 18:10; 29:25), 그리고 생명의 길(잠 3:18; 9:11 등)이다.<sup>32</sup> 이는 삶의 불확실성, 무력감과 인생무상으로 인한 불길 예감을 극복하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3</sup>

### 3) 속담의 구조

속담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지혜와 가치관이 응축된 짧은 말/ 격언을 뜻한다. 그것은 한민족의 오랜 생활경험이 담겨있는 지혜의 결정체이며 수양과 처세의 교훈들이다. 속담과 유사한 것으로 이치에 꼭 들어맞아 교훈이 될 만한 짧은 말인 격언(格言, maxim/ adage)이나 금언(金言)이 있다. 또한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키케로)는 식의 사리에 맞는 말인 명언(名言, famous saying)이 있고, “대기만성(大器晩成, 노자)”이나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예수 그리스도, 마 26:52) 같이 저명인사의 말이나 문장, 혹은 널리 알려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苦盡甘來)와 같은 고전이나 고사성어(故事成語) 등에서 나온 것들도 속담과 같이 쓰인다.

가까이 있는 것의 가치나 중요성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의 “등잔 밑이 어둡다”처럼 속담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온 것으로 널리 회자되고 전승되어 공동체의 정신과 의식을 반영한다. 속담은 대부분 듣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비유적 표현으로 정서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면서도 지적으로는 어떤 깨달음을 주는 삶의 지혜를 제시한다. 그것은 어떤 가르침을 주는 말로 핵심을 간략하게 외우고 말하기 쉽게 표현한 것들이 많다.

32 잠 1:33; 3:18,22; 4:10,13,22-23; 5:6; 6:23,26; 7:23; 8:35; 9:6,11; 10:9,11,16-17; 11:19,30; 12:10,28; 13:3,8,12,14; 14:25,27,30; 15:4,24; 16:10,15,22; 19:23; 20:2; 21:21; 22:4,23; 29:25 등.

33 이종근, “메소포타미아와 잠언의 운명관에 대한 연구, 61-103.

속담의 구조는 전통적으로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성이 있고, 민간에 널리 퍼져 있는 통속성과 대중성이 있으며, 삶의 교훈과 방책을 제시하는 교훈성이 있어야 한다.<sup>34</sup> 이는 속담은 표현이 형식적으로 간결하고, 내용상 상황에 대한 함축적 함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속담의 특징으로는 첫째, 대중 누구에게나 공감어 되고 체험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에 따른 언어, 풍습,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차이가 있으므로 속담은 지역적으로 고유한 향토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셋째, 속담은 시대 상황에 맞아야 하므로, 그것은 시대사조에 맞게 새롭게 생성되는 특성이 있다. 넷째, 속담은 민중들의 당대 생각과 사상, 및 생활상에 대한 모습을 반영한다. 다섯째, 속담은 가능한 한 간결하고 세련된 언어형식으로 표현된다. 여섯째, 속담은 오랜 생활체험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처세의 지침, 해학과 재치가 있어 의사소통을 부드럽게 한다. 일곱째, 속담은 사례별 교훈적 또는 풍자적 의미를 지닌다. 여덟째, 속담은 의사소통에 편리한 음수율인 4음절(공든 탑이 무너지라 등)이나 복합문의 형태인 대구법(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 등)으로 전승된다. 아홉째, 비판하는 함의로 비속어가 등장하기도 한다(개, 개자식, 개 팔자 등). 열 번째, 시대 상황에 적절치 않은 것은 보편성이 결여된다(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sup>35</sup> 속담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회자되고 전승된다.

한국은 반만년 동안 외세에 시달리면서 독립을 유지해 왔다. 이런 고뇌의 삶은 세계에서 특이하게 그 수요가 60,000여 개의 가장 많고 다양한 속담을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sup>36</sup> 이런 고난의 과정이 속담 속에 녹아 있어 마치 한류나 올림픽처럼 속담은 바르게 정립하고 세계 앞에 정립한다면, 세계인의

34 김종택, 「속담의 기능과 의미 구조」, 『새국어생활』 제4권 2호(1994년 여름), 1-2.

35 김승용, 「우리말 절대지식: 천만년을 버텨갈 우리 속담의 품격」 (동아시아, 2016), 336-337.

36 송재선, 「여성속담사전」 (동문선, 1999), 1.

공감을 얻고도 남을 한민족의 정신문화의 위용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4. 잠언과 속담 비교

잠언이나 속담은 삶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형극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것들은 질곡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발전했다.

##### 1) 일부 사례들 비교<sup>37</sup>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 (속담).

처음 작은 허물이나 잘못 든 버릇이 반복되면 나중 큰 허물이나 잘못으로 귀결된다는 뜻; 한번 몸에 밴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늙어서까지 간다는 의미로 “세 살 버릇 여든까지”라는 말이 있다. 아이의 본성, 재능과 재질을 고려하여 순종과 경건의 길로 가도록 훈련한다는 의미이다. 출발이나 시작할 때의 버릇이나 습관은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Cf. 잠 13:24; 29:15). 신학적으로도 유사한 모티브가 있는데, “태초는 종말까지 지속한다 (Urzeit extends to Endzeit)”는 것이다. 창세기 원역사의 신들의 투쟁 사건들은 종

37 참고문헌: 김승용, 「우리말 절대지식」; 이선중, 「한국의 속담 대백과」(아이템박스, 2007); 김도환, 「한국속담 활용사전」(한울아카데미, 1993);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idem,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5-31*, 등.

말까지 지속된다는 명제이다(Herman Gunkel).<sup>38</sup> 모두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아  
름담고 원만한 살을 위해서는 출발이나 시작 단계에서 바르게 배워야 한다  
는 교훈이다.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잠 29:12).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속담).

지도자나 윗사람의 행동이 바르고 정직해야 아랫사람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에서 아첨과 속임수가 통용되면, 지배  
층의 호의를 얻고자 악행이 계속되어 공동체를 부패하게 하고 파멸을 가져  
온다는 논리이다. “As the people’s judge is, so are his officials; as the ruler of  
the city is, so are all its inhabitants”(집회서 10:2, NRSV). 이는 왕이 어떠한 백  
성도 그렇다는 뜻이다(“Like king, like people” [Qualis rex, talis gres]). 속담에 “나는  
바담 풍 할 테니 너는 바람 풍 해라”는 말에서 윗사람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제대로 본받기 어렵다는 말이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니라”(잠 5:22).

“아닌 뎨 굴뚝에 연기 나라”(속담).

악을 뿌리면 그 결과로 악한 결실을 거두며 죄의 줄이라는 인과율에 매이  
게 된다. 행위물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거두게

---

38 Herman Gunkel, *Schöpfung und Chaos in Urzeit und Endzeit: eine reg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über Gen 1 und Ap Joh 12*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895); Claus Westermann, *Beginning  
and End in the Bible*, tr. by Keith Crim(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2), 5-39; Bernhard Anderson,  
*Creation versus Chaos: The Reinterpretation of Mythical Symbolism in the Bi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114-143; 이종근, “메소포타미아와 잠언의 운명관에 대한 연구,” 93.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한국에서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때지 않을 때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모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속담).

사람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 12:36)의 말씀과 유사하다. 어떤 경우라도 옳고 바른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을 왜곡하지 말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전하라는 의미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이 있다. 이는 아무리 비밀리 하는 말도 새어 나가기 쉬우니, 말을 항상 조심해서 하라는 뜻이다. 잠언에서 유사 성구가 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잠 15:2);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잠 31:26).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잠 19:3).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속담)

사람은 미련하므로 명철과 지각이 없거나 부족하여 자신의 길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악한 성향을 따라 정당화하고 그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 하나

님을 원망한다는 것이다. 인간적 미련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겸손해야 한다(cf. 대하 28:9; 사 30:30).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남 탓이나 세상 탓만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일이 잘되면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안 되면 남을 원망하거나 운명 때문이라고 하며 책임을 돌리는 자세를 경고하는 말이다. 유사한 속담으로는 “소경이 개천 나무란다”; “제 얼 굴 더러운 줄 모르고 거울만 나무란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 29:25).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속담).

눈앞의 권력, 부, 명성, 지위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 가치에 의해 자신을 통제당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런 가치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의 방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결과는 울무에 걸리게 된다(베드로의 경우, 분위기와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함, 마 26:69-75).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생기고, 안전한 길이 있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큰 재난을 당해도 그 일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은 천장처럼 되어있어 비가 많이 오면 하늘이 뚫렸다, 또는 세상 종말이 오는 듯하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등의 표현을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가운데도 이를 피해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의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헤쳐나갈 방법 하나쯤은 생기게 된다는 의미이다.<sup>39</sup>

39 김승용, 「우리말 절대지식」, 506-507.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잠 13:13).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속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것을 순종하는 자로 보상받게 된다. 하룻강아지는 ‘하룻강아지’인데,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개를 의미한다. 하룻이란 소, 말, 개 등의 가축들의 나이를 말하는데, 생후 1년의 강아지는 혈기왕성하고 두려움이 없어 맹수에게도 마구 달려드는 경향이 있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sup>40</sup> 어떤 사람이 마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하룻 강아지처럼,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경우 피해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정승집 송아지 백정 무서운 줄 모른다”; “과붓집 송아지 백정 부르러 간 줄 모르고 날뛰다” 등은 유사한 속담이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잠 17:25).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속담).

미련한 아들은 늘 부모의 근심과 고통이 된다는 의미이다. 미련한 자는 뻔뻔하고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 올바른 부모의 교훈을 무시하게 되어 부모의 근심과 고통이 된다. 가지가 많은 나무는 늘 바람에 흔들리듯, 자손이 많은 부모는 늘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린 시절 대체로 자식의 마음은 “미련한 것이 얽혀”(잠 22:15) 있어 부모는 근심하게 훈계하고 징계하고 가르쳐 양육해야 하므로 자식을 부모의 근심과 고통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40 김승용, 앞의 책, 506.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잠 22:3).

“재앙을 물리치면 못값이요 물러서면 천 냥이라”(속담).

현자는 감당기 어려운 재앙 앞에 일단 피하는 것이 도리이다. 경거망동으로 달려들거나 억지로 맞서서 대결하면 피해를 받게 마련임으로 명철과 근신의 자세로 재앙을 피해야 한다. 이는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승산이 없는 일에 함부로 달려들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어리석은 자가 경거망동으로 재앙 앞에 피해를 받는 것이나, 힘이 없는 자가 강한 것을 당해 내려다가 피해를 입는 것은 유사성이 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잠 18:8).

“말 없는 말이 천 리 간다”(속담).

남을 험담하는 것은 듣기가 좋아서 잘 받아들여지고, 쉽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언제나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말(言)은 말(馬)과 같은 다리는 없지만, 천리마처럼 천 리만큼이나 멀리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부정적 소문은 잘 받아들이고 전하는 특성이 있다(cf. 잠 20:27,30; 26:22),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잠 25:11).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속담).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 말은 아름다운 그릇에 보기 좋고 향기로운 과일처럼 잘 어울린다는 의미이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경우에 맞는

www.kci.go.kr

말만 잘해도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많은 빛이 있더라도 말하기에 따라 탕감받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한마디의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잠 10:19-20).

“기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웃는 낫에 침 뱉으랴”(속담).

“침묵이 성급한 혀보다 낫다”(은크세손키의 교훈).

“내 아들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말을 드러낼 때까지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네 입을 조심해서 그것이 너의 멸망이 되지 않도록 하여라”(아히칼의 금언 96-97)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분별하고 진실치 못하며 천한 주제의 대화가 있기 마련이고, 끝내는 허물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입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의인의 혀는 마치 순수하게 제련된 불순물이 없는 은처럼 덕을 세우는 말이 된다. 마치 웃는 낫으로, 진실과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은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히칼의 금언에서는 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말로 드러내면, 그것이 개인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이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찌니라”(잠 27:1-2)

“난쟁이끼리 키 자랑하기, 앓은뱅이 무엇 자랑하듯”; “입찬말은 묘 앞에 가서 하

여라”(속담).

“사람의 계획들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신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프타호텝의 교훈 115-116).

“내일이 어떻게 될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아메네모페의 교훈 ix, 5-6).

성경은 기본적으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 또는 앞날에 대해 겸손해야 한다(약 4:13-16; 마 6:34). 사람의 자량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과 같다. 특히 미래의 계획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믿고 지나치게 장담하는 입찬말은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게 하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정도가 고만 고만한 처지인 사람들끼리 다툼을 일으키는 무익한 일이다. 특히 미지의 일들에 대한 것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cf. 19:21).

“모사(謀事)는 재인(在人)이요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다”(고사성어).

“사람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다르다”(아메네모페 19:14-17).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라는 의미이다. 하늘의 뜻과 어긋나는 계획은 아무리 인간이 계획하고 진행시켜도 하늘이 돕지 않고 성취에 우호적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헛된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과도 유사한 의미이다. 또한 어떤 일의 긍정적 결과에 대해 인간적인 당연한 결과로 여기는 것도 경계하는 말이다.

www.kci.go.kr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1)라고 선포한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잠 22:15).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속담).

“훈련받고 교육받으며 발에 족쇄가 있는 아들은 성공한다”(아히칼의 금언 2).

자녀를 올바르게 자라도록 매를 들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부지런히 하고 있음에도 더욱 부지런히 하도록 독려 차원의 속담이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잠 23:13-14). 오늘날 매를 대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훈육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훈육하라는 의미도 된다.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있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나 자행자지하는 성격을 바르게 고치는 것은 자녀교육에 대한 지혜로운 처방이다. 자녀에게 당장 원하는 것을 주는 것보다는 귀할수록 버릇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아히칼의 금언처럼 자제력을 함양하도록 발에 족쇄를 두는 금기 사항들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 양육의 길이다.

## 2) 공통점과 차이 및 기여

잠언과 속담은 내용면에서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그중 공통적인 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자는 특별히 많은 수의 잠언과 속담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했음을

보게 된다. 이는 이스라엘이나 한국 양 문화권이 고난의 경험을 공유한 배경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잠언과 속담은 모두 오랜 세월 널리 사용된 함축성 있는 말씀들이다. 삶의 여러 상황에서 소통과 의사 표현에 다양성을 주고 원만한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셋째, 양자 모두 의미와 재치가 있는 표현들을 지향하고 양식은 시 형태로 되어있다.

넷째, 시대 여건에 따라서는 일부는 정신은 계승하되 적용은 재해석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잠언에는 자녀교육에 매를 대라고 했지만(잠 20:30), 지금은 자녀 양육에 매를 대는 것은 금기시한다.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는 식의 여성 비하적 표현 등은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반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의 자구적 의미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양자 간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

첫째, 히브리 잠언은 무엇보다도 신본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 특징이다. 잠언의 종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기반을 둔 것에 비해 한국의 속담은 신을 지칭하는 하늘이라는 용어는 쓰지만, 히브리 잠언처럼 분명하게 표현된 신에 대한 언급은 없다.

둘째, 잠언과 속담은 시가형식으로 되어있지만, 속담이 더 운율적인 면이 있다. 대부분 속담은 듣기에 좋고 기억하기 좋은 운율 구조로 되어있다.

잠언과 속담은 개별적으로 그 의미나 교훈이 비록 작을 수 있지만, 그 원칙과 정신은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잠언과 속담은 직간접적으로 의식을 계몽하고 일깨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고, 널리 활용되어 우리의 처신과 문화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잠언과 속담의 의미와 가치가 재발견되고, 그 원칙과 정신에 대한 통찰과 자각으로 개인적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위하는데도 일부 기여가 예상된다. 이것은 언어

생활을 즐겁고 풍요롭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인간관계 증진과 소통에 일조하고, 명량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일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히브리 잠언에 관한 연구는 시민의식의 선양에 일조할 수 있다. 잠언의 요체인 지혜, 명철과 지식, 공의, 정직, 근신과 전략 등의 요소들(잠 1:25)은 전문성과 객관성 등의 보편적 가치들을 신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 인권 및 번영과 복지 등은 법과 정의의 법치주의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나라 현실의 다소 부정적인 모습들을 대처하는 방안들 중에는 사실(fact)을 인정하는 진실(truth) 위에 법치(rule of law)를 세우고, 자아 희생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양보 등의 자세를 함양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잠언과 속담 등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사용하는 것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잠언과 속담은 고대 이스라엘의 레반트와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및 문화적 상황에 기인해 발전된 것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그 수요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잠언은 가나안에서 히브리인들의 일상과 고대근동의 지혜문학. 특히 이집트 문헌을 반영한다. 그것은 히브리 신앙 교훈의 일상적 적용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그것은 신본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표현이다.

그 지혜는 잠언에서 삼중구조로 되어있다. 첫째, 지혜의 삼중연합으로 지혜, 명철, 지식은 천지창조에 동역했다. 둘째, 삼중연합은 상호보완적이며 또한 불가분의 관계로 일상화되고 인격화되며 또한 신격화의 면모를 나타낸다. 셋째, 개인적으로 집(삶)을 짓는데도 동역한다. 천지창조와 내재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동역하는 삼중구조가 개인과 개인의 삶 건축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전 역사기간 동안 세계 패권국들의 위협과 갈등 속에서 시달려온 배경의 한국 속담은 오랜 생활경험이 담겨있는 지혜의 결정체이자 처세훈들이다. 그것은 주로 민간의 지혜와 가치관이 응축된 짧은 말과 듣기에 좋고 기억하기 좋은 운율 구조로 되어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성, 민간에 널리 퍼져 있는 통속성 및 대중성이 있고 삶의 가르침과 방책을 제시하는 교훈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간결하고, 내용상으로는 상황에 맞는 함축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잠언과 속담은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다. 잠언의 신적(神的) 기원과 그것의 활용은 삶의 한계에 도전하는 가능성에 대한 혜안을 열어주는데 기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기의 시대에 히브리 잠언과 한국 속담을 더욱 체계화하고, 정립하여 활용하는 것은 고난 중의 한국 사회에 성서 신학적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 6. 참고문헌

- 강성열, 「구약성서로 읽는 지혜 예언 묵시」. 서울: 한들, 2004.
- 강성열, “프랑스 속담과 우리나라 속담에 있어서 성차별 요소 및 그 의미 기능비교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40 (2002), 1-22.
- \_\_\_\_\_, “불어학: 프랑스어 속담과 관용어의 언어학적 비교연구”, 「불어불문학연구」 58 (2004), 333-359.
- 권혁승, “여호와 경외로서의 언약”, 「구약논단」 22 (2006), 27-44.
- 김경량, “문화, 문학: 한국과 알제리 속담에 나타난 전통 여성관 비교”, 「비교문화연구」

구」 30 (2013), 53-71.

김광물, “실천적 지혜를 탐구하는 잠언 교수”, 「신학논단」 62 (2010. 12), 57-79.

김도환, 「한국속담 활용사전」. 한울아카데미, 1993.

김미순, “속담의 ‘變化’ 요인에 대하여”, 「언어학 연구」 37 (2015): 69-89.

김상규, 「속담으로 풀어보는 이야기 경제학」. 오늘의 책, 2005.

김성진, “잠언의 지혜(חכמה): 지혜의 문예적, 해석학적 기능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5 (2011), 63-82.

\_\_\_\_\_, “잠언 10-31장의 문장잠언 (sentence sayings)에 대한 해석학적 제언”, 「ACTS 신학저널」 (구 ACTS Theological Journal) 27. 단일호 (2016), 9-44.

\_\_\_\_\_, “잠언 격언 (Proverbial Sayings) 에 대한 해석학적 제언: “우정시”(잠언 27:1-17)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Text-Linguistic Analysis)”, Canon&Culture 7/2(2013), 167-193.

김성훈, “잠(箴)과 잠언의 비교연구 - 동질성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7 단일호 (2011), 197-234.

김승용, 「우리말 절대지식: 천만년을 버텨갈 우리 속담의 품격」. 동아시아, 2016.

김요한, “지혜가 지은 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57 (2003), 3-5.

김정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 「문예운동」 (1966), 165-167.

김정우, “잠언 8장 22-31 절에 나타난 지혜의 성격과 창조에 있어서 그의 역할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24 (2009), 7-33.

김종도, “이집트 속담을 통해 본 이집트인의 의식구조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11.1 (2007), 194-224.

김진규, “잠언에 나타난 ‘마스킬’ 의 번역의 문제”, 제87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2), 71-81.

김진희, “여자들의 신화적 우주: 생태여성신학을 위한 지혜와 영성에 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 (2002), 449-476.

김춘기, “지혜전승에서 본 현자예수”, 「신학과 목회」 8 (1994), 29-92. “지혜의 인격화 (Lady Wisdom)와 로고스의 관계”, 「신학과 목회」 18 (2002), 61-75.

김화경, “한, 일 현대담의 비교연구”, 「한민족어문학」 50 (2007), 159-186.

- 김희석, “잠언 1-9장의 해석학적 신학적 함의”, 『Canon & Culture』 5. 1 (2011), 203-235.
- 김희정 외, 『지중해 나라별 속담』.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 노세영, “지혜문학에 나타난 창조신학”, 『신학사상』 85 (1994), 94-118.
- 도수환, “불한사전 속담 등재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92 (2015), 217-242.
- 마빈 토케어, 은제로 역, 『히브리 잠언』. 컨콜디아사, 1992.
- 박종수, “잠언서에 나타난 여성지혜: 잠언 8:22-31 & 31:10-31을 중심으로”, 『論文集』 25 No.1 (1994), 9-31.
- 박혜경, “잠언 8장의 여성 지혜와 안병무의 「선천택」에 대한 해석학적 대화”, 『신학사상』 163 (2013), 9-45.
- 배정훈, “빈자(貧者)의 역습 시대”, 『구약논단』 26.1 (2020), 7-11.
- 서영숙, 박포리,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에 나타난 민속신앙 비교”, 『한국민요학』 48(2016), 133-165.
- 송은영, 『속담 속에 숨은 수학: 단위와 측정』. 봄나무, 2012.
- 송용구, “세대를 초월한 서양의 잠언적箴言의 서사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장점 엮보기”, 『문예운동』 (2013), 278-283.
- 송재선, 『여성속담사전』. 동문선, 1998.
- \_\_\_\_\_, 『돈 속담 사전』. 동문서, 1998.
- \_\_\_\_\_, 『우리말 속담 큰사전』. 서문당, 2006.
- 안근조, “지혜문학연구의 제방법론: 잠언 1-9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8. 1 (2012. 3), 34-59.
- \_\_\_\_\_, “구약성서의 ‘쉐마’와 호크마: 고대이스라엘의 지혜교육”, 『기독교교육정보』 21 (2008), 165-190.
- \_\_\_\_\_, “잠언의 ‘가난과 부’”, 『기독교사상 통권』 53. 4 (2009), 33-41.
- \_\_\_\_\_. 『히브리 지혜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 동연, 2016.
- 양승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새가정』 (1977), 64-66.
- 오홍엽, 『재미있는 중국어 속담』. 친디루스연구소, 2010.
- 요네하라 마리, 한승동 역, 『속담 인류학』. 마음산책, 2012.

- 유선영, “관용어로서의 속담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은유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61 (2015. 8), 225-246.
- 유윤중, “잠언이라는 장르와 설교”, 『복음과 신학』 10 (2008), 50-70.
- 윤형, “잠언 8:22-31에 나타난 지혜와 창조의 역학적 관계”, 『구약논단』 26(1) (2020), 93~119.
- 이선중, 『한국의 속담 대백과』. 아이템박스, 2007.
- 이수경, 『한국인의 속담』, 베스트박스, 1999.
- 이영호, “잠언과 동양의 격언”, 『기독교사상』 53.4 (2009), 65-76.
- \_\_\_\_\_, “이스라엘 지혜 문학과 그 영향 -구약성서 안에 이스라엘인 민족, 그들만의 고유한 지혜가 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5 (2015), 47-68.
- \_\_\_\_\_,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 킹덤박스, 2014.
- 이은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여성의 지혜 -평화를 가져오는 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6 (2008), 33-57.
- 이영옥, “한영간 의인화의 차이”, 『언어연구』 25.1 (2008), 61-81.
- \_\_\_\_\_, “한영 속담의 의인화 비유법”,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7.1 (2009), 153-172.
- 이정배, “잠언과 명심보감”, 『세계의신학』 46 (2000), 287-292.
- 이종근, 『히브리 사상』, 개정판. 삼육대학교 출판부, 2014
- \_\_\_\_\_, “함무라비 법과 성서에 나타난 천상회의”, 『서양고대사연구』 41 (2015. 6), 61-100.
- \_\_\_\_\_, “함무라비 법과 잠언 8장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천상회의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3.1 (2017), 190-233.
- \_\_\_\_\_, “메소포타미아와 잠언의 운명관에 대한 연구: 신앗시리아 제국의 에살하트의 불길예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7 (2018), 61-103.
- 이하나, “장자(莊子)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전도서 7장 15-18절”, 『구약논단』 26.2 (2020), 41-67.
- 정달영, “한, 일 속담의 비교연구”, 『비교한국학』 4 (1998), 60-106.
- \_\_\_\_\_, “한, 영 속담의 비교연구”, 『비교한국학』 6 (2000), 147-168.
- 조복희, 이진숙. “한국 부모 - 자녀관계 관련 속담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인식도”, 『아

- 동학회지」 19.1 (1998), 5-25.
- 정중호, “잡언 31: 10-31 의 여성 활동과 고려시대의 여성 활동”,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79.1 (2012), 7-29.
- 조혜진, “한국어와 스페인어 속담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찰”, 「이베로 아메리카」 13/1 (2011), 319-350.
- 채은하, 「전도서에 나타난 속담의 수사학적 기능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한국 속담의 다문화성 양상 탐색”, 「인문사회」 21 11.2 (2020), 481-494.
-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 지혜문학의 눈으로 다시 본 성서」. 서울:동연, 2009.
- \_\_\_\_\_, “잡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14. 4 (2008. 12), 147-166.
- \_\_\_\_\_, “구약 지혜전승과 신약성서”, 「구약논단」 18 (2005. 8), 128-144.
- \_\_\_\_\_, “지혜문학과 묵시문학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2 (2004), 49-67.
- 최성은, “폴란드와 한국의 속담 비교연구 - 말(言)과 관련된 속담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59 (2017), 195-220.
- \_\_\_\_\_, “폴란드와 한국의 속담 비교연구: 돈·재물과 관련된 속담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44 (2018), 127-158.
- 크렌쇼, 제임스 L,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 강성열 역.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한동구, “잡언과 논어의 언어관”, 「기독교사상」 53. 4 (2009), 42-53.
- \_\_\_\_\_, “구약과 공정한 사회: 잡언의 지혜 신학에 반영된 ‘공정한 사회의 이념’”, 「구약논단」 17. 3 (2011년 9월), 12-33.
- 허유희, “이탈리아어와 한국어의 속담 비교연구”, 「이탈리아어문학」 43 (2014), 469-492.
- Barré, Michael L., “Fear of God” and the World View of Wisdom”, *Biblical Theology Bulletin* 11. 2 (1981), 41-43.
- Berger, Teresa, “‘Wisdom Has Built Her House’ (Proverbs 9:1): Gendering Sacred Space”, *Studia Liturgica* 38 no 2 (2008), 171-183.
- Boring, E., Eugene. “Seven, Seventh, Seventy”, *NIDB*, 5:197-199.
- Brown, William P., *The Seven Pillars of Creation: The Bible, Science, and the Ecology*

- of Wonder*.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Coogan, Michael D., *Stories from Ancient Canaan*. Westminster Press, 1978.
- Dally, Stephanie, *Myths from Mesopotamia: Creation, the Flood, Gilgamesh, and Others*. Oxford: Oxford Univ. Press, 1991.
- D'Angelo, Frank J., "Some Uses of Proverbs",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28/4 (Dec., 1977), 365-369.
- Doukhan, Jacques B. *Proverbs*. Nampa, Idaho: Pacific Press, 2014.
- Fox, Michael V. "World Order and Maat: A Crooked Parallel", *Journal of the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23 (1995), 37-48.
- \_\_\_\_\_, "From Amenemope to Proverbs: Editorial Art in Proverbs 22,17-23,11",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6/1 (2014), 76-91.
- Miller, Ed L., "The logos of Heraclitus: Updating the Report", *The Harvard Theological Review* (1981), 161-176.
- Monson, James M., *The Land Between: a Regional Study Guide to the Land of the Bible*. Highland Park, IL; Jerusalem: Institute of Holy Land Studies, 1983.
- Overland, Paul., "Structure in the Wisdom of Amenemope and Proverbs",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Studies in Honor of Dwight W. Young* (1996), 275-291.
- Sparks, K.L.,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A Guide to the Background Literature*. Peabody, MA: Hendrickson Pub. 2005.
- VanDrunen, David., "Wisdom and the Natural Moral Order: The Contribution of Proverbs to a Christian Theology of Natural Law",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33.1 (2013), 153-168
- Walton, John H.,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Introducing the Conceptual World of the Hebrew Bibl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6.
- Waltke, Bruce K.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NICOT. Wm. B. Eerdmans Publishing Com., 2004.
- \_\_\_\_\_,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5-31*. NICOT. Wm. B. Eerdmans Publishing

Com., 2004.

Watson, Duane F., “Seven Churches”, *ABD*, V:1143-1144.

Wigram, George V., *The New Englishman’s Hebrew Concordance*. Hendrickson Publishers, 1984.

Wolf, Laibl., *Practical Kabbalah: A Guide to Jewish Wisdom for Everyday Life*. Harmony, 2010.

Zuck, Roy B., “The House on the Rock: Wisdom from Proverbs for Today’s Families”, *Bibliotheca Sacra* 145/580(Oct - Dec 1988), 466.

(일부 자료들만 참고로 열거함).

검색어:

잠언

속담

지혜

이스라엘

한국

## A Study on Hebrew Proverbs and Korean Adages

Jong-Keun Lee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comparative research on the Hebrew proverbs in the Old Testament and Korean adages. Both cultures have been beset with peculiar geopolitical settings and have struggled to survive through centuries of suffering. Hebrew proverbs are expressions of wisdom based on the fear of God. They are arranged for the daily lives of ancient Israelites in Canaan, and the ferocious battlefield between groups vying for hegemonic power. Hebrew proverbs and Korean adages are both substantially more numerous than those of other cultures in general.

Proverbs are composed of three structures. First, wisdom is expressed as the threefold union of wisdom, understanding, and knowledge. They worked together in the creation of the world. Second, they are in complementary and

www.kci.go.kr

inseparable relationship and are routinized and personified, suggesting deification. Third, they work together in building personal lives. Threefold union is reflected in the building of human lives which is similar to the creation of the world.

Korean adages are crystals and maxims for lives in the Korean peninsula. They are short phrases, condensed forms of folk wisdom and values, which are pleasant to the ears and easy to memorize. Hebrew proverbs and Korean adages share both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ssues of divine origin and folk wisdom can contribute keen insights for coping with life circumstances. It seems worthwhile to compare, systematize, and apply both Hebrew proverbs and Korean adages in the period of the COVID-19 crisis.

## Keywords

proverb

old saying/ adage

wisdom

Israel

Korean

- 투고일: 2020년 12월 28일
- 심사일: 2021년 2월 12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2월 15일

[www.kci.go.kr](http://www.kci.go.kr)